

현대제철 원청교섭 단체교섭 원칙아래 확실하게 준비한다

현대제철 원청교섭을 전제로 한 노사정 회의, 노사 실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3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이하 원청)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 양측에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지원을 위한 노사정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7월 9일 1차 노사정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속한 원청교섭 개시에 노사정은 공감하였습니다. 이날 노사정 회의에서 앞으로 단체교섭의 직접 당사자인 원청과 지회의 노사 실무회의 진행하기로 하고 7월 13일 첫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위 같은 흐름은 5~6월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이 전개되면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6월 24일 금속노조 주최로 현대제철비정규직 당진·순천·내화 3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그룹 본사 투쟁을 진행했고, 이날 당진지회는 전조합원이 총파업을 결행하고 양재동에 집결했습니다.

6월 29일 최명식 지회장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면담이 진행되었고, 지회장은 현대제철 원청교섭의 신속한 개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현대제철 원청교섭의 실질적 개시를 위한 노사정 3자 회의를 제안했고, 현대제철 원청이 결국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는 단체교섭 돌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0여년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2021년 불법파견 회피 꿈수 자회사 저지와 고용보장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 및 통제센터 점거 투쟁,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5년의 현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지회는 노사간 핵심쟁점인 교섭의제에 대해 사전에 교섭의제를 조정(축소)하지 않고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금속노조가 6월에 현대제철에 발송한 당진·순천·내화 3지회 공동의 요구안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현대제철이 본 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제시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6.24 당진 총파업과 금속 양재동 투쟁 후
노조 요구에 노동부 제안과 현대제철의 수용
원청교섭 전제 7.9 첫 노사정 7.13 첫 노사협의 진행
금속노조 투본과 현장 조합원의 파업투쟁으로 이룬 성과
교섭방식·의제 등 금속노조 단체교섭 원칙 지키며 준비할 터



▲ 7월 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열린 현대제철 원청교섭 준비를 위한 노사정 회의. 노측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 최명식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교섭대의원, 사측은 현대제철 상생환경개선TF팀장과 안전보건기획실장 등이 참가했다.

노조 요구안에는 임금·성과금, 고용안정, 노조활동, 복지조항은 물론이고 불법파견 근절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등이 주요하게 담겨있습니다. 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뭐라고 하든, 단체교섭 의제는 철저히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또한 지회는 당진·순천·내화 3지회가 노조 위원장 명의로 함께 단체교섭 요구 및 교섭요구안 전달을 하였고, 동일한 원청을 상대로 한 3지회 공동(집단)교섭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회별 개별(분리)교섭을 한다고 해도 이것도 노조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8~9월 1차 원청교섭(상견례) 개시를 목표로 몇 차례 노사정회의와 노사실무협의를 진행합니다. 교섭을 위한 준비도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원칙 아래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노조-지부-지회의 교섭과 투쟁 체계속에서 단체교섭 기조와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기다렸고 싸워왔습니다. 이제 '빠르게'를 넘어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간입니다.